



3면

“순창 상수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 즉각 착수할”

#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별 2빌 6번지

2020년 9월 11일 금요일 (음 7월 24일) 제2618호

대표전화 (063)288-9700

## 수해복구비 1억원 긴급 자금 지원

### 시도지사협, 송하진 전북지사 제안 만장일치 의결 신속 지원위해 (사)전국재해구호협회에 특별 기탁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사진)가 집중 호우와 태풍 피해복구를 위해 긴급 자금지원에 나선다.



에서 장마와 연이은 태풍 등 자연재해까지 겹쳐 17개 시도의 피해 복구 의지와 연대의 힘을 모아 지원하게 됐다”며 “이번 지원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데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0일 유례없는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일상복귀를 신속히 도와야 한다고 판단, 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지사의 제안에 따라 자금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데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긴급 지원은 지난 4일 전국 17개 시도의 의결을 통해 만장일치로 수해복구비 1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앞으로도 자연재난, 재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 각종 현안에 대해 17개 시도, 중앙 정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 구호금 지급, 생계 및 생활안정 필요용품 구입지원 등을 맡고 있는 법정구호단체인 (사)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하기로 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산불, 지진, 코로나19 등 자연, 사회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8회에 걸쳐 총 5억 1,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유호상기자



“다가온 가을에 펼쳐진 푸른 하늘”

연연한 가을 날씨를 보인 10일 전북도청에서 바라본 하늘이 푸르게 펼쳐져 있다.

### 도교육청, 고창 모 초등학교 음주 관련 무더기 징계

지난 5월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개학 기간 중 고창 모 초등학교 교사가 점심 시간 급식실에서 술자리를 가진 것이 적발돼 무더기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교육청은 5월 7일 관련 내용을 인지한 후 5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당학교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 학교장 외 5명에 대해 8월 3일 징계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학교 교장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이날 함께 지리했던 교사 4명에게는 경징계 처분했다. 또, 기간제 교사 1명은 계약이 해지됐으며 행정실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들이 교내 음주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특히 학교 교육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해당 학교 학부모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5월 학교 급식실에서 점심을 먹으며 함께 술을 나눠 마신 사실이 적발돼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에 회부됐다. 이후 도교육청은 8월 19일 징계위를 개최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 책놀이터 ‘우주로 1216’ 대통령상

#### 트윈세대 전용공간 재창조 공간문화 새로운 상징 평가

전주시가 도서관에 12세부터 16세까지의 트윈세대를 위해 만든 책놀이터가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공간으로 인정받았다.

전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한국건축가협회의 ‘2020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공모전에서 전주시립도서관 꽃섬에 조성된 ‘우주로 1216’이 대상인 대통령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15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은 품격 있는 생활 공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국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킨 공간을 선정해 주는 상이다. 올해는 전국의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간 등이 추천한 35개 작품이 경합한 끝에 ‘우주로 1216’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우주로 1216’은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에 긴 12세부터 16세까지 트윈세대를 위한 전용공간이다.

시는 전국 최초로 이 공간을 만드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여는 등 이 세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

심사위원회는 ‘우주로 1216’이 트윈세대의 눈높이에 맞춰 도서관을 놀이와 탐구, 체험을 진행할 수 있는 전용공간으로 재창조된 만큼 공공도서관 공간문화의 새로운 상징이 되기에 충분하며 미래지향적 전형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11일 ‘2020 대한민국 건축문화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공간문화대 대통령상 수상으로 전주시가 지향하는 도서관 도시가 큰 힘을 받게 됐다”며 “아이들을 위한 책놀이터를 시립도서관 전역으로 확대하고, 예술전문도서관, 여행자도서관, 시립도서관, 정원도서관 등 고정관념을 깨 다양한 도서관을 조성하여 상상과 용기의 힘으로 도시를 바꾸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기자

### 전북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막아라”

#### 돼지 반·출입 금지지역 추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발생이 경기, 강원 접경지역(민통선)을 중심으로 계속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북도는 이에 도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고자 돼지 반·출입 금지 지역을 추가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당초 경기(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파주, 고양, 김포), 강원(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인천(강화, 옹진)접경지역 3개 시도, 14개 시군을 돼지 반·출입 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지난 8월 들어 인제,춘천에서도 양성검체가 발견돼 이번에 강원 4개 시·군(속초, 양양, 홍천, 춘천) 및 경기 3개 시·군(가평, 남양주, 의정부)을 돼지 반·출입 금지지역으로 추가로 지정했다.

도는 지난해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이후 도내 발생 및 유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방역대책상황

실을 설치·운영(24시간 비상대기)하고 있다.

또한 축산차량에 의한 질병전파를 차단하고자 올해 도비 34억원을 편성해 14개 거점소독시설(1개소, 시군)을 연중 상시 운영 중이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 전염원을 사전에 검색하고자 양돈농가 및 축산시설(도축장, 분뇨처리 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시행중이다.

지금까지 양돈농가 851호 8,507두와 축산시설 46개소 4,385건을 검사한 결과 전부 음성이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돼지 반·출입 금지지역 확대 조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지역의 확산과 도내 유입 우려에 따른 조치”며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현재까지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단계의 엄중한 방역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농가의 차단방역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도내 양돈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 道, 비대면 종교활동 돕는다

#### 온라인 교육 지원... 방역수칙 준수여부 현장 점검 병행

전북도는 도내 전체 종교시설에 대상으로 온라인 종교활동 교육을 지원해 보다 쉽게 비대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대상으로 교육해 종교시설에 대한 비대면 종교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되면서 도내 종교시설은 20일까지 비대면 종교활동을 적극 권고하고 정규예배 외 소모임 등 모든 대면 활동과 단체 식사를 금지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집합제한명령 상태다.

이는 송하진 도지사가 지난달 28일 기독교계 대표들과의 만남에서 비대면 예배를 강력히 권고하며 약속한 사항으로 감사 채움과 장소 협의 등의 사전 준비를 거쳐 지난 9일부터 정음, 익산을 시작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스마트폰 또는 스마트패드만 갖추고 있다면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유튜브 라이브 등의 인터넷 생방송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해 누구나 쉽게 온라인으로 예배, 법회 등의 종교활동을 방송하는 법을 익힘으로써 대면 종교활동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이로 인해 비대면 종교활동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대형 교회를 제외한 중소 종교시설에서는 종사자와 이용자들의 고령화로 인한 스마트폰 사용 미숙과 와이파이 시설 등 디지털 시설, 장비 부족 문제를 겪고 있어 온라인 종교활동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 6일 도내 전체 교회 4,126개소를 포함해 종교시설 4,751개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들 중 3,012개소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종교집회를 진행했으며 477개소가 비대면으로, 1,244개소가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호상 기자

이에 전북도는 디지털 뉴딜 일환으로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전북도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과정에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 교육을 추가 편성하고 도내 전체 종교시설을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사람이 비우면 자연은 채웁니다

사람의 손길이 멈춘 자리에 나비가 날아들고 새들이 지저귀니.  
사람의 발길이 찾아온 자리에 푸른 열매가 자라고 붉은 꽃이 필니.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푸른 세상을 꿈꿉니다.